

어린이 여가문화와 기독교 영성교육

함정은(숙명여자대학교)

이신영(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여가문화 참여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각성과 책임감에 입각하여 어린이 여가문화와 기독교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기독교 영성교육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여가문화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와 교사, 그리고 현장의 교역자들이 아이들에게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 내에서의 여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첫째, 어린이 여가문화는 교회가 그 소명과 역할을 감당하여 어린이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기독교 영성교육은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억되어야 하며, 신앙발달의 수준에 따라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 서론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정보화 사회’ 그리고 ‘핵가족화’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특징은 물질의 풍요와 가상의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활동,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며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과도한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 소외 및 정서적 불안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청소년들로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폭력, 약물오남용, 절도 및 학업 중단 등과 같은 문제는 이미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서고 있으며, 특히 성적이나 진학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 또한 그 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 더욱이 이러한 비행행동을 하는 시기가 점차로 낮아져 초등학교생들조차 흡연이나 음주, 절도, 성추행, 납치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나 성인 범죄 못지않은 심각한 양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²⁾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성인

1) <http://kostat.go.kr> 2011보도된 “2010사망원인통계결과”의 연령별사망원인분석 의하면 남녀사망원인 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의 순서이었으며 10대~20대는 자살, 운수사고, 암의 순서로 자살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임을 밝혔다. 20년전인 1980년 10대 사망원인은 1위 뇌혈관질환에 이어 8위가 자살이었다(이채연 외(1989) “최근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의 변동”, 仁濟醫學, 10(1) 29-37).

2) www.spo.go.kr “범죄분석-소년,학생범죄분석” 대검찰청, 2010년(pp. 592-595), 2007년(pp. 500-503)

이러면 누구나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2012년에 이르러 전면시행으로 바뀌어 실시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또한 아동들에게 더욱 많은 여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여가 프로그램과 부족한 여가 인식 및 여가 기술의 부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들을 불건전한 환경으로 내몰거나 방치함으로써 제2 혹은 제3의 예기치 않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가 선용의 의미와 방법 및 기술 등을 정확하고 폭넓게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욕구나 개성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를 통해 자아발견이나 자기 성취 등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으로 구성되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간 활용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보자면 아동들의 여가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활동 내용 또한 매우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강제적이고, 비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때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한다. 김은식(2006), 양금희(2007), 이윤정(2007) 등 역시 놀토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방향성 가운데 '여가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교육이 모든 경쟁과 과제로부터 아동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전인적 자아를 회복하여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쉽고 놀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볼 때 현대사회에 있어 여가문화 주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교회는 아동들의 여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심각성을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이전의 주말의 개념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에 이르기까지였던 것이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로 교회학교 아동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장통합이나 기독교대한 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에서 지난 10년 안팎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평균 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³⁾을 보면 이러한 주말 여가시간의 확대가 분명히 하나의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영적지도자로서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사회적이며, 보다 성숙하고 이타적인

“학생범죄자 범행시 연령분석”에 의하면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전체 37,185건, 7-14세 범위가 6,531(17.5%)건이었고, 살인, 강도, 방화, 간간 등의 강력범죄(흉악)이 전체 2,787건 중 7-14세는 307(11%)건,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 등의 강력범죄(폭력)이 전체 34,567건 중 7-14세는 3,974(11.5%)건이었다. 2009년도 한해동안 전체 학생범죄(형법, 특별법)는 127,738건으로 7-14세의 범위는 14,246건이었고 이것은 전체학생범죄 중 11.1%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6년 전체 학생범죄는 72,731건이었고 7-14세의 범위는 7804건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범죄 및 비행행동이 늘어났으며 그 시기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크리스천 노컷뉴스(2011년 2월 28일),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1731020> CBS종교부 천수연기자 작성.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여가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몸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을 향해 실천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목자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 10-12)”.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어린이 여가문화 형성의 주역이 되어야 함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선한 목자인 교회가 나서서 성실함과 깊은 애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초등학생 비행의 원인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퇴폐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때 잘못된 가치관에 따른 반사회적, 비도덕적 심성의 발달이 올바른 인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범죄자로서의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교회는 어린이의 인성문제를 위해 그 해결방안을 기독교 영성교육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여가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인성 문제를 기독교 영성교육을 통해 바로 잡음으로써 아동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한 어린이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나, 1982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기독교의학협의회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하면서 영적인 개념의 건강을 추가하였고, 1998년 5월에는 WHO 이사회에서도 1948년 내려진 건강의 정의에 ‘영적 개념’과 ‘역동적 개념’을 추가하자는 결의가 있었다(이신영, 2010: 1).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건강은 몸과 마음과 사회성만으로 정의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고 평안한 상태라야 비로소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적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가문화의 필요성과 기독교교육을 통한 여가문화 확립의 불가피성이 주장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 학문 영역 내에서의 어린이 여가문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여가문화를 통한 기독교 영성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여가문화로서의 기독교 영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5일제 수업 확산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여가문화 참여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각성과 책임감에 입각하여 어린이 여가문화와 기독교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기독교 영성교육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여가문화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와 교사, 그리고 현장의 교역자들이 아이들에게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 내에서의 여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어린이 여가문화

1. 여가

인간은 누구나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이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자유로움 뿐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경제력에 의한 행복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노동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하고, 편안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여가'라고 할 수 있다.

협의를 여가는 '남는 시간', '겨울', '틈' 등의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가는 단순한 시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동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공감하며, 기대하고 공유하는 것, 즉 여가는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문화는 여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다(Chick & Dong, 2005).

그렇기 때문에 '여가'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한 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사회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가는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의미로 분류하여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먼저 시간적 개념의 여가라 하면 일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 주로 노동시간이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활 필수 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한다. Bucher, Shivers & Bucher(1984)는 이러한 자유시간이 경제적 소유, 기계문명의 발달, 지연, 제재나 강요된 무위, 은퇴 및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유시간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의 무게감이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여가로서의 진정한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활동적 여가라 함은 시간적 개념의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umazedier(1967)는 여가를 개인이 직장·가정·사회 등의 의무로부터 벗어났을 때 휴식이나 기분 전환 혹은 이익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 참여,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면서 자아성취나 자기표현을 위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만 진정한 여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함정은, 1998: 86 재인용).

끝으로 상태적 혹은 경험적 관점에서의 여가란 여가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가 존재상태(state of being)로서 레저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사색, 예술, 삶의 찬미 등과 같은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여가의 본체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보면 여가란 남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어 하고, 휴식하고 싶어 하며, 즐기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정보의 습득 및 방법의 터득이라는 필수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자기표현의 한 형태로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기독교인의 여가

여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여가는 단순한 자유 시간(free time)이 아니라 자유정신(free spirit), 자유 의지(free will)를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심리적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김광득, 1997). Pieper(1963) 역시 여가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 즉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이는 단순히 외재적 요인들의 결과 또는 휴일, 휴가 등과 같은 시간적 개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는 시간이나 활동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영적인 범위에 까지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여가는 주일 혹은 일요일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Sabbath)’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휴일로 지키는 토요일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샤밧(Shsbath)은 ‘쉬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한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사역을 마치고 제 칠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하는데(창 2: 1-3),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으로 이 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우리의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날이었다(출 23:10-12, 막 2:27).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므로(마 11: 29), 우리에게 늘 안식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용조, 2001: 417).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창 2: 1-3)

이처럼 성경에서도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은 모두 고단한 삶에 대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쉼’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쉼’이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식일을 생명의 탄생과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생명과 삶이 어디에서 기원하며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생각하고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임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류호영, 2002).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와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가의 시간적 개념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시간 이외의 시간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생명과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것을 볼 때 ‘안식’과 ‘여가’의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독교인의 여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본다면 주일(일요일)에 모든 삶의 일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한다는 것 뿐 아니라 일상생활(주중) 가운데에서도 세속적인 삶에의 관심보다 안식일의 근본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곧 기독교인이 여가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습관이 나아가 곧 여가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독교 내부적인 관점에서 살펴 볼 때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유지 장치라고 본다면 교회 밖의 세계는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교회를 내려놓고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일을 “A”, 그 외의 일(여가)을 “B”라고 할 때,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는 예배와 기타 교회의 모든 일은 “A”, 그리고 그 외의 일(즉 교회 밖의 일, 예배 이외의 일)은 “B”라고 한다면 곧 교회 밖의 일이나 예배 이외의 일이 여가가 된다는 것이다.

13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조사’를 실시한 통계청(2011)⁴⁾의 자료에서 보면 여가활동의 종류에 ‘종교활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독교인 대상의 설문조사로 바꾼다면 그 여가의 범주 안에는 ‘종교활동’ 대신 ‘세상활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즉,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적 삶을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라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교회 밖의 세계가 곧 우리에게 여가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교회 밖의 세상을 인식 혹은 여가라고 강조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 및 경험적 개념에 따른 논리이며, 인식일의 본질인 자비와 공화를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쾌락과 유희와 유희와 놀이를 통해서 그 곳에서 심리적, 정신적, 영적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비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자비와 공화-인식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을 배움으로서 우리가 참다운 인식, 참다운 여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안정장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곳에서 보호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집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교회 밖에서의 역동적인 인식을 즐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전을 무시하고 뛰쳐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장선으로서 자아실현, 자기성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함께(고 3: 16) 교회 밖으로 나오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들만의 축제를 벌일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제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만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교회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킬 때에도, 그 믿음의 경건한 생활을 멈추고 나아온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춤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여가에 대한 자세이며, 이를 통해 참다운 기독교 여가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나오면 긴장이 풀리고, 구속성이 약해져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이것이 곧 ‘여가’가 되겠지만, 이것이 일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여가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반 기독교적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적 삶은 기독교 영성교육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4) <http://kostat.go.kr>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13세 이상의 인구의 43.4%가 여행을 원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관람 9.5%, 스포츠활동 8.1%, 자기개발 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19세에서는 여행 28.3%, 기타(TV 시청, 스포츠관람, 컴퓨터게임, 봉사활동 등) 19%, 문화예술관람 16%, 스포츠활동 10.3% 등으로 나타났다. p. 35.

이에 여가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느끼며, 자아실현과 자기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독교 여가문화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3. 어린이의 여가문화

건강한 여가 활동은 즐거움을 통해 아동들에게 심신의 안녕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성의 신장이나 창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아이들은 평면형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움직임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며 주변과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초등학교 시기는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로서 외부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떠한 정보라도 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독립성이나 의존성, 공격성이나 협동성,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형성해 나가게 되고(김진곤, 2008: 19),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접하게 되는 친구, 책, 인터넷 및 다양한 대중매체들은 아동의 의지나 판단과는 관계없이 주변 환경과 무수한 관계를 맺어 가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신체발달이나 감각운동 발달의 기초 위에 습득된 운동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익히며,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각정보를 유아기에 비해 훨씬 논리적인 방법으로 훌륭하게 조직화시킬 수 있게 됨으로 새롭게 얻어지는 정보들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김경희, 2001: 192).

특히, 아동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사회적 환경이 더욱 넓어지게 되어 부모나 가족 구성원 이외의 환경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주변의 교사나 부모 또는 다른 의미 있는 성인들과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격이나 인성을 발달시켜나가게 됨으로써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여가형태를 제공하고, 이를 습득하는 방법과 기술을 이해시키며, 새롭고 다양한 여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돕도록 하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건강한 여가의 기회는 타인과의 상호경쟁과 협력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의 여가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그들의 심신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안과 활력을 주며, 자기실현과 자기성취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유쾌한 경험의 기억과 함께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Sofranko & Nolan(1972)은 아동기의 여가경험과 성인의 여가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린 시절의 여가 경험이 성인기의 여가 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고(황성식,

2006: 12 재인용), Yoesting & Birkhead(1973) 역시 아동기와 사춘기에의 여가 경험이 성장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황성식, 2006: 12-13 재인용).

한편, 2006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06 국민여가조사 발표 및 여가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여가참가 목적은 '개인적 즐거움(5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스트레스 해소(14.4%)', '건강(1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집단의 주 여가활동 Best 10에는 'TV 시청(16.5%)', '게임(12.2%)', '음악 감상(8.6%)', '독서/만화책보기(7.2%)', '영화보기(5.8%)', '잡담/통화하기(5.8%)', '인터넷/채팅(4.3%)', '미니홈피관리(3.6%)', '축구(2.9%)' 등이 나타났는데(박세혁, 2010: 117), 놀라운 사실은 10개의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이 TV나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와 함께 하는 활동이었고, 오직 축구 하나만이 신체활동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기에서 기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동기는 유아기적의 신체적 특성에서 벗어나 체격이 커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며, 기본움직임과 관련된 단순한 기술이 아닌 보다 복합적이고 세련된 운동기술이나 근육의 협응 및 정교화 등의 발달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자아와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아동들이 운동과 같은 동적활동보다 TV 시청이나 게임, 음악 감상 등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주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한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은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제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게임과 더 많은 TV시청에의 시간 허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교회는 주일학교 활동을 통해 예배, 말씀, 친교, 휴식, 봉사, 교육 등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나아가 어린이들의 영성이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토대를 견고히 하며, 내면 깊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 중심의 교회적 역할이 주말 특히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주중 사역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왜곡된 여가문화를 정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 하는 가장 일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확장된 주말의 여가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 내로 아니 신앙 안으로 이끌어 들여야 할지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해왔던 양적 성장의 목적만을 위한 '아이들 붙잡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가 구분 없이, 고단한 학업과 성적 또는 진학의 스트레스가 있는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즉 재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여가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III. 기독교 영성교육

1. 기독교 영성교육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기독교 영성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연구 분야 중 영성발달(spiritual development)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영성탐구는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탐구되고 있으며, ‘내세’나 ‘엘리트주의’와 같은 파편적 영성이해가 아닌 일상성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 영성을 추구하며 단순한 ‘영성 훈련’의 방법을 넘어 ‘영성학’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정초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손원영, 2009: 191).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교리와 삶의 방식에 기초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영성이 발달하게 되며 그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다(권택조, 2009: 246). 또한 기독교영성의 핵심주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성의 회복과 증진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회복은 매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이며(이숙중, 2001: 295) 기독교영성교육의 목표 역시 그리스도의 닮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성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성이 ‘관계성에 기초하여 인간과 초월자의 관계에서 의식이 확장되며, 삶의 본질을 찾으며, 창조적 행위의 결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김난예, 2006: 190-191).

이러한 양상이 어린이에게서 나타날 때 영성은 ‘창조적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어린이 영성교육은 단순히 종교나 종파의 교리를 교육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민감한 창조적 에너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어린이들 스스로 생명 근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난예, 2006: 186).

기독교에서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종교적 존재로 이해되고, 완전한 인격체, 합리성을 지닌 존재, 순결성을 지닌 존재,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되는 동시에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로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강관해, 2003:165-168). 즉, 어린이는 죄의 속성만을 지닌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한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 내면세계에 항상 선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원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영성의 개발과 성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이숙중, 2001: 299).

정신 분석학자 스토어(A.Storr)에 의하면 많은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로빈슨(E.Robinson) 역시 4000명 중 600명 즉 15%가 어린 시절에 영적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김난예, 2006: 195 재인용). 이와 같이 어린 시절의 영적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이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장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곧 전인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선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마음의 측면, 곧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키가 자라났다’는 것은 육체적 성장을 가리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과 사람과의 관계적 성장을 이루어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이 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전인건강이라고 부르며(심영진, 2005: 1), 이 네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인간

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린이 영성교육은 교회와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나 사회 등 그 어떤 교육 환경에서라도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일 어린이의 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불안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이 될 것이며, 인생에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지루함 속에서 방황하거나 인류의 평화나 복지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인간이 누릴 성공과 특권, 소유만을 중요시하는 편협하고 제한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임스 파울러는 6세에서 12세 사이 학령기 아동들의 신앙발달 특징을 ‘신화적-문자적 단계’라 명명하면서 이 시기는 구체적 신앙의 단계로서 경험에 의한 환상과 실재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인동형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작하고 선한 분, 교리에 대해서는 구원론적 입장보다는 도덕적·윤리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신앙과 종교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부모나 교사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주로 이야기나 드라마 또는 신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김희정, 2004: 16). 실제로 이 시기의 초등학생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죄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므로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성경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즐기면서 착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성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전인적 성장의 기초 위에 영적, 신앙적 발달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 시기의 영성교육의 경험이 성장하는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여가의 기본적인 특성을 토대로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 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문화 내에서 여가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가치 한 것일 뿐 아니라 일탈과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견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교육이 여가문화 가운데 자리 잡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 기독교 영성교육의 현황

지난 120 여 년 동안 교회 교육은 일반교육의 형태와 흡사한 방식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주일학교 교사는 일반 평신도 중에서 헌신을 희망하는 자가 교사로 봉사하였고, 교재는 성경에 기초를 둔 공과를 개발하여 분반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과는 성경을 지식 전달위주로만 전달할 뿐 신앙 자체를 형성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회학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학교로서 학생과 교사만 있지 실제로 신앙공동체 전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양금희, 2011: 404).

양금희(2011)는 “교회의 어린이 사역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어린이 사역을 학교모델, 축제모델, 영성형성모델, 신앙공동체모델, 대안학교모델로 유형화하여 어린이 사역이 우리교회와 사회의 상황 그리고

개개 어린이의 특성과 관심을 고려하여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2000년도 이후 한국 어린이 사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축제형 예배는 기존의 교회학교 형태가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착안하여 어린이의 문화적 코드에 맞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하고, 놀이와 게임 등의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1차적으로는 어린이에게 재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영성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어린이 영성교육의 현황을 실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가문화로서의 기독교 영성교육이 자리매김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축제형 예배는 ‘꿈이 자라는 땅(꿈땅)’, ‘메빅’, ‘윙윙’, ‘어와나’, ‘엔프렌즈’, ‘와우큐키즈’ 등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축제형 예배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

(1) 꿈이 자라는 땅 : 온누리 교회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비슷한 컨셉트로 시행하였다. ‘꿈 땅’이라는 용어는 0-13세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말씀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약동하며 성장하는 터전 혹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말씀이며,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기업·사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에는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공동체 훈련프로그램인 ‘세계를 품은 아이들’, 정신지체장애 아동부서인 ‘사랑부’, 주중 영어놀이 프로그램인 ‘드림씨드’, 12-48개월 아기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실시되는 ‘꿈 아이 놀이터(아기학교)’ 등이 있으며, 연간 프로그램으로 5월과 9월 전후에 ‘어린이 성령집회’, 12월 성탄전도집회로서 ‘어린이 맞춤전도집회’, 7-8월 여름캠프로 ‘Adventure’ 등을 진행한다. 가정과 연계된 프로로 ‘부모와 함께하는 회복집회’를 년2회 진행,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여행’, ‘가정축제’가 있으며 교사훈련프로그램으로 JUMP가 있어 어린이 성장이해 등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받게 된다.

(2) 메빅 : 메빅은 일본 홋카이도도 삿포로의 우치코시 곤베이 목사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97년 노원구 중계동의 삼일교회(정화영목사)에 의해 소개되어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다. 메빅은 메빅은 **ME**emory, **BI**ble, **G**ame의 약자로서 말씀을 암송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설교, 설교성경공부,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즐겁고 신나는 놀이를 예배에 접목한 형태이다. 스페셜 메빅은 주일예배에 이루어지는 메빅을 의미하며, opening song→ 게임(1~2개의 게임 후 시상, 15-20분)→ 찬양(15-20분) → 헌금→ 기도→ 설교(10-15분) → 깜짝맨(7분, 광고와 암송을 복습하기 위한 목적)→ 분반공부(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와 어린이의 경건일지 교환)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며, 게임으로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영적성숙과 제자가 되게 하며 사회성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교사들의 준비가 지나치게 많고, 어린이들의 기대 부흥을 위해 철저한 연습을 거쳐야 하며,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게임을 단순한 오락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하거나 지나친 승부욕에 대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오락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5) 현황에 관한 자료는 천영섭(2011), 양금희(2011), 강성룡(2010)의 논문과 인터넷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3) 윙윙 : 삼일교회에서 90년대 초반 '한국메빅스쿨'이라는 이름을 걸고 메빅의 축제적 예배로 시작하였다가 2003년 메빅 예배에 주중 사역인 어린이 셀을 접목하여 윙윙이라는 명칭으로 개발, 보급을 시작하였다.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으로 나뉘며 대그룹 사역에는 윙윙축제예배와 윙윙캠프가 있고 소그룹사역에는 윙윙어린이 셀과 윙윙 전인적 양육시스템이 있다.

윙윙은 독수리 날갯짓을 가리키는 의성어로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표어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 강한 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교사기도회→시작선언과 오프닝→게임과 캐릭터→예배선언과 찬양→경배와 통성기도→헌금→성구낭송과 설교(15-20분)→찬양→주기도문과 축도→광고→시상(새 친구 소개)→추첨과 마지막인사→분반모임(설교시간의 성경본문)으로 되어 있다.

윙윙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활동적인 찬양과 율동, 신나는 게임과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가 즐거워하는 예배로서 영감이 넘치는 예배이며, 교사와 어린이 리더가 예배의 모델이 되어 드린다. 어린이의 문화와 정서, 신체리듬에 맞는 예배이다. 또한, 예배의 4요소 즉 말씀, 찬양, 기도과 헌금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체가 철저히 준비하는 예배이고,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 예배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예배의 4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쉬우며 예배가 지나치게 재미 위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사확보가 힘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4) 와우큐키즈 : 미국의 Metro Ministry와 영국 Branch Klub에서 영향을 받아 2002년 낮은 울타리에서 기획한 축제적 예배프로그램으로 한국적 상황과 어린이의 문화코드에 맞게 변형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기쁨의 회복, 감동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회복, 어린이의 문화적인 감성코드로 접근한 예배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350여개의 정회원 교회에 교재와 자료를 지원한다. 와우큐키즈는 오프닝준비와 프리게임→카운트다운과 깜짝맨 등장→사회자인사→양팀 리더소개와 규칙소개→시작기도→요절 암송과 찬양시간→게임시간(본격적 팀대항 2-3개 게임,)->침묵시간과 침묵의 시간 안내→드라마와 실험→동화→마무리설교와 결단의 시간→헌금과 헌금기도→시상과 광고→주기도문과 암송→축복하며 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칭찬해주는 예배, 한주에 한 가지 메시지 강조 전달 등을 통해 놀라운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예배이다. 잠재력을 일깨워 꿈을 갖게 하는 예배이다. 짧은 평가시간(5-10분), 매달 새로운 교재 개발, 순수 창작 율동과 챗, 학습지를 이용한 가정방문이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어린이들이 쉽게 산만해지기 것, 그리고 훈련된 교사의 필요와 많은 재정 지출 필요 및 소외된 어린이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5) 어와나 : 1940년대 미구 시카고의 North Side Gospel Center에서 처음 개발되어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어 미국 안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10,400교회가 되었다. 전 세계 109개국에 지부를 두고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딤후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놀이적 요소로 어린이들을 동기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암송과 교리적인 요소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40분→핸드북시간40분(암송)→교제시간40분(시상과 암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은 복음중심, 성경암송중심이라는 것과 게임, 시상 등으로 재미를 유발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양

성, 지도자훈련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간이 너무 길고, 찬양과 기도, 설교와 응답, 감사와 헌신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서 분명한 예전 없는 프로그램이 되기 쉽다는 것, 그리고 게임과 시상으로 인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교제시간은 소그룹모임의 형태이다.

(6) 엔프렌즈 : 1997년 삼일교회에서 시작했던 메빅이 씩씩으로 바뀌어 독자적인 행보로 들어가면서 2001년도에 메빅 사역의 허가권을 가지고 진행해오던 곳이 명성교회이다. 명성교회는 2006년에 메빅의 한국 토착화 형태로 개발된 엔프렌즈를 시작하였다. 엔프렌즈는 어린이 예배를 위한 찬양, 율동, 드라마, 성경학교 세트 등 주일학교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가장 한국적이고도 세계적인 음악, 율동, 영상, 교재 등을 내놓고 있다. 엔프렌즈는 하나님중심, 관계중심의 사역, 교회중심의 사역, 어린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중시하는 사역을 실천한다. 엔프렌즈는 카운트다운→ 게임→ 찬양과 율동→ 신앙고백→ 경배찬양→ 기도→ 말씀암송→ 찬양단 찬양→ 드라마(감작맨)→ 찬양→ 설교→ 헌금→ 주기도문→ 광고→ 분반공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경험하는 예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예배, 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이미지와 은유로의 예배 및 관계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교사의 준비가 지나치게 많고, 교사확보의 문제가 있으며, 씩씩, 메빅 등과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어 비슷한 측면의 단점들이 많이 발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특이할 만한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많은 축제형의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외국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서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 및 욕구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과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인 프로그램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둘째, 대부분의 활동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이나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놀이로서 삶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으며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게임이나 놀이 구성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통해 지나친 승부욕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좌절감을 갖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경쟁적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신체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협동적 방법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배워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더욱 성경에 기초를 둔 어린이 기독교 영성교육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일부 원하는 아이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폭넓은 기독교 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려면,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여가문화에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나 참여 방법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하여 혹시라도 가정이나 경제, 그 이외의 개인적 문제들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너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아동이나 운영하는 교회에서나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비용부담의 문제로 인해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작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다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든 재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마치 경쟁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동일하게 설치하며 알게 모르게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비용은 교회의 역할과 소명 감당의 최소의 가치일 것이다.

다섯째, 시간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문제를 여가문화 확산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각 교회마다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 사역 뿐 아니라 주중 사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삶과 신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교회와 삶이 하나가 되어 교회에 있어도 예배, 교회 밖에 있어도 예배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교회 곳곳에서 어린이 기독교 영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일이고,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주역들을 교육시키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개발되어 그것이 어린이 여가문화의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기독교 영성교육에 참여하였더니 영성이 좋아졌고, 영성이 좋아지니 여가 시간에도 더욱 경건하고 건강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어린이 여가문화와 기독교 영성교육이 공유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IV. 결론

최근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중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확보된 초등학생의 경우 여가 시간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나 가족 및 기타의 문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반사회적 비행행동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문제행동을 갖는 아동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질 뿐 아니라 문제행동의 유형 또한 매우 심각하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종교적 지도자적 위치에 서 있는 교회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오늘날 위상이 떨어진 한국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바이다.

우리는 여가를 삶이나 노동, 경제활동 등으로부터 분리된 막연하게 남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여가라는 것은 이렇듯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상태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한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단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심신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시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삶과 분리되지 않은 신앙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양육되어진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풍요로운 여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뛰어야 할 때 뛰지 못하고,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하며,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잘 쉬는’ 방법을 통해 ‘잘 성장’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놀면서 배운다. 교회마저도 제도권 교육의 방법과 동일한 패턴으로 아이들에게 쉽 없는 전진을 독촉한다면 아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들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린이들에게 ‘교회 중심의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적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가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제안은 아동들에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만을 무한 제공하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프로그램은 너무 많다. 많은 교회들이 과도하다 싶을 만큼의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외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라 참다운 쉼 속에서 갖게 되는 진정한 휴식, 그리고 그 휴식과 평안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 어린이 여가문화의 궁극적인 방향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앞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한편, 기독교 영성교육은 기독교교육의 범주에서 특히 영성발달(spiritual development)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 또한 어린 시절의 영적체험 및 경험이 이후 성장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영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한 차원에서의 영성훈련을 넘어 신앙발달 수준에 따른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가를 통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통해 그들의 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는 ‘여가로서의 기독교 영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관혜 (2003). “기독교세계관에서 본 아동관”. 『한국일본교육학연구』 7(1). 159-174.
- 강성룡(2010). “주일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축제예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권택조 (2009) 『기독교영성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경희 (2001). 『발달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광득 (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김난예 (2006). “어린이를 위한 영성 계발 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 185-213.
- 김은식 (2006). “주5일근무시대를 위한 통진적인 주말교회학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진곤 (2008).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여가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정 (2004). “교회학교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교육’의 이론 및 실제: 주말의 여가를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대검찰청, “2010범죄분석-소년, 학생범죄분석”(pp. 592-595), “2007범죄분석-소년, 학생범죄분석”(pp. 500-503)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 류호영 (2002). “주5일제와 노동과 쉼에 대한 신학적 고찰”. 『목회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박세혁 (2010). 『디지털시대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서울: 가림출판사.
- 손원영 (2009).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심영진 (2005). 『현대인의 전인건강』 서울: 은혜출판사.
- 양금희 (2007). “기독교교육의 새희망, 아! 주5일 수업”.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세미나자료.
- 양금희 (2011). “교회의 어린이 사역 유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6. 395-428.
- 이숙중 (2001) “인간교육에서 영성교육의 중요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 295.
- 이신영 (2010).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이 기독교 성인여성의 건강관련체력, 혈중지질, 신경내분비계 및면역반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윤정 (2007). “주5일제 수업에 대한 교회교육적 대안(토요학교 적용 모델제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이채연, 조병만, 문덕환, 김성천, 배기택, 김용완 (1989). “최근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의 변동”, 『仁濟醫學』, 10(1). 29-37.
- 천영섭(2011). 사례연구를 통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의 활성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신학전문대학원.
- 통계청 (2011) “2010사망원인통계결과”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52.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결과”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1-49. <http://kostat.go.kr>
- 하용조 (2001), 『비전성경사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함정은 (1998). 『레크리에이션』 서울: 형설출판사.
- 황성식 (2006). 초등학생의 생활환경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꿈이자라는땅 <http://www.onnuri.or.kr/sub.asp?gubun=2902>(온누리교회)
- 메빅 www.mebigkorea.or.kr
- 어와나 www.awanakorea.net
- 엔프렌즈 www.nfriends.or.kr
- 와우큐키즈 www.wowqkidz.com
- 윙윙 www.wingwings.com
- 크리스천 노컷뉴스(2011년 2월 28일),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1731020>
CBS종교부 천수연기자 작성.
- Bucher, C. A., Shivers, J. S., & Bucher, R. D. (1984). *Recreation for today's society*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 Chick, G., and Dong, E. (2005). *Cultural constraints on leisure*. In E. L. Jackson(Ed.), *Constraints to leisure*(169-183). State College, PA: Venture.
- Pieper, J.(1963).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PantheonBooks, Inc.